

# 선택부정 반복동사 부정극어\*

이정식

(원광대학교)

**Lee, Jeong-Shik. 2011. Choice-denying Repeated-verbal NPI.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3). 233-249.** Observing that in some cases, the distribution of choice-denying repeated-verbs like *hatunci maltunci* 'V-or not-V-or' in Korean is the same as that of a regular NPI, I propose a process and a way to license this repeated-verb as an NPI. In doing so, I prove that the construction involving this verbal sequence should be analyzed as a monoclausal rather than a biclausal. Further, I show that word order variation that the construction exhibits cannot be smoothly derived by the traditionally assumed SOV hypothesis for Korean, but can be more adequately derived by the recently emerging SVO hypothesi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paper lend support for the universal Specifier-head-complement order initiated by Kayne (1994) and help eliminate the head-parameter, thereby conforming to the recent minimalist spirit of maximal underspecification of Universal Grammar.

**Key Words:** choice-denying repeated-verb, NPI, monoclausal, biclausal, SOV hypothesis, SVO hypothesis, Specifier-head-complement order, head-parameter

## 1. 선택부정 동사반복 현상

먼저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 b. \*네가 학교에 가든가 말든가, 난 상관 해/상관있어/관심 있어.

---

\* 본 논문에 대하여 소중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남아 있는 어떠한 오류에 대해서도 그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몫임을 밝힌다.

- (1')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가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네가 학교에 가든가 가지 말든가, 난 상관 해/상관있어/관심 있어.
- (2)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안 가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네가 학교에 가든가 안 가든가, 난 상관 해/상관있어/관심 있어.
- (2')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가지 않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네가 학교에 가든가 가지 않든가, 난 상관 해/상관있어/관심 있어.
- (3) a. 네가 학교에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네가 학교에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 해/상관있어/관심 있어.
- (3') a. 네가 학교에 가든지 가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네가 학교에 가든지 가지 말든지, 난 상관 해/상관있어/관심 있어.
- (4) a. 네가 학교에 가든지 안 가든지, 난 상관 안 해/상관 없어/관심 없어.  
 b. \*네가 학교에 가든지 안 가든지, 난 상관 해/상관 있어/관심 있어.
- (4') a. 네가 학교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네가 학교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난 상관 해/상관있어/관심 있어.

위의 예들에서 대표적으로 *가든가 말든가/가든가 안 가든가* 유형과 *가든지 말든지/가든지 안 가든지*의 두 유형으로 동사의 부정형(negative form)이 긍정형(positive form) 뒤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문맥을 고려할 때 *가든지 말든가*가 기본적으로 양단간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들 중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두 가지 선택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이해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위 구문을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이라 부르겠다.

이 구문의 다른 한 가지 특성은 각 예문의 대조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정동사 반복이 긍정문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b)의 예들) 부정문에서만 허용된다는 ((a)의 예들) 것이다. 이러한 대조는 마치 잘 알려진 부정극어의 분포를 보는 것과 같다.

- (5) a. 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b. \*나는 아무것도 상관한다.

여기서 부정극어 *아무것도*는 부정소가 있는 (a)의 환경에서만 인허(license)되는 것이 관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위의 반복된 동사를 '반복동사 부정극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소개하는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과 유사한 다른 구문이 있는데 (6)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소가 없음에도 부정동사 반복이 허용된다.

- (6) a. 영수가 오든가 말든가 영희는 간다.

b. 철이가 놀든지 말든지 순회는 공부한다.

필자의 소견으로 (6a,b)에서 반복된 긍정-부정 동사를 포함하는 절은 부가절(adjunct clause)인 반면 위의 (1-4)에서 반복된 긍정-부정동사를 포함하는 절은 뒤에 오는 술어의 보어절(complement clause)로 이해된다 (참고, 난 [네가 학교에 가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해. *I don't care [whether you go to school or not].*). 따라서 부가절 내의 긍정-부정 동사 연속체는, 보어절 내의 것과는 달리, 극성을 지니지 않으며 단지 상대성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sup> 이에 대해 다음에 좀 더 부연하여 기술한다. 먼저, 보어절의 긍정-부정 동사는 주절의 부정동사의 부정소에 의해 성분통어(c-command) 되므로 (5a)에서 보는 전형적인 부정격어가 인허되는 것처럼 극성어로 인허될 수 있다; 반면 부가절의 긍정-부정 동사는 위의 (6a,b)와 아래의 (6c,d)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

(6) c. 영수가 오든가 말든가 영희는 오지 않아.

d. 철이가 놀든지 말든지 순회는 안 놀아.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보어절의 긍정-부정 동사와는 달리, 위 (6c,d)에서 이 반복동사는 실은 부정소에 의해 성분통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는 문제의 반복동사가 이중적인 성질을 지닌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보어절의 긍정-부정 동사는 일종의 부정격어인 반면 부가절의 긍정-부정 동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성질 때문에 문제의 구문이 극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그 성질들을 좀 더 살펴보고, 이 반복동사가 왜 부정격어처럼 행동하는지, 더 나아가서 이 구문이 어떻게 도출되고 반복동사 부정격어가 어떻게 인허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의 통사적 특성

반복되는 동사는 반드시 긍정형이 앞에 오고 부정형이 뒤에 반복 된다.

(7) a. \*말든가 가든가                      a'. \*말든지 가든지

1) 좀 더 상세하게, -든가나 -든지를 상대성 접속어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상대성 접속어미들에 관하여는 임지룡(1985)과 여기에 소개된 문헌들 참고).

- b. \*안 가든가 가든가      b'. \*안 가든지 가든지  
 b. \*가지 말든가 가든가    c'. \*가지 말든지 가든지

반복되는 동사는 시제가 서로 동일하다:

- (8) a. 가든가 말든가      a'. 갔든가 말(았)든가  
 b. 가든가 가지 말든가 b'. \*갔든가 가지 말든가    b". 갔든가 가지 말았든가  
 c. 가든가 가지 않든가 c'. \*갔든가 가지 않든가    c". 갔든가 가지 않았든가  
 d. 가든가 안 가든가    d'. \*갔든가 안 가든가      d". 갔든가 안 갔든가

부정동사 반복은 본동사에 국한되며 조동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9) a. 네가 그 내막을 파헤치든가 안 파헤치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네가 그 내막을 파헤쳐 버리든가 안 버리든가, 난 상관 해/상관있어/관심 있어.  
 c. 네가 그 내막을 파헤쳐 버리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따라서 (9c)의 말든가는 *안 파 버리든가/파 버리지 않든가*의 축약형으로 보인다.

이 구문은 부정극어를 취하지 못 한다.

- (10) a. 네가 아무나 만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네가 아무도 만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11) a. 아무나 너를 만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아무도 너를 만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위에서 반복된 동사를 '반복동사 부정극어'라고 취급했는데, 부정소가 이 부정극어를 인허한다면 진성 부정극어인 *아무도*가 추가적으로 인허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내포절 내의 부정극어가 주절의 부정소에 의해 인허되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극어 인허의 국부성을 고려한다면 (소위, 동일절 조건, clausemate condition) 다룰 수 있는 것이겠으나, 내포절내의 부정동사의 부정소가 이 요소를 인허하지 못하는 것은 흥미 있는 현상이다.<sup>2)</sup> (이

2) 한 익명의 심사자는 (10b, 11b)에서 부정-긍정의 순서로 동사반복이 이루어지면 부정극어 인허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i) a. 네가 아무도 안 만나든가 만나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b. 아무도 너를 안 만나든가 만나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그러나 필자의 직관으로 위 (ia,b)의 예는 여전히 비문이며, 문제의 동사반복 환경에서 긍정-부정의 순서가

현상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논하겠다.)

그리고, 이 구문은 부정명사구(indefinite NP)나 의문사구(wh-phrase)가 공히 허용된다.

- (12) a. 내가 무얼 먹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뭐 something)  
 b. 내가 무얼 먹든가 말든가, 넌 상관 안 하니/상관없니/관심 없니?  
 (뭐 what) (대답: 햄버거.)
- (13) a. 누가 너를 만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누가 someone)  
 b. 누가 나를 만나든가 말든가, 넌 상관 안 하니/상관없니/관심 없니?  
 (누가 who) (대답: 영철이. 개라면 안 될 테니까.)

마지막으로,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에 대한 한 관심사는 이 구문이 어떻게 유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다음의 예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 구문이 아래에서처럼 쌍절에서 일부분 필요한 생략을 거쳐 유도되었다고 (쌍절분석, biclausal analysis)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14) a. 내가 학교에 가든가 (아니면) 내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b. 내가 학교에 가든가 (아니면) ~~내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여기서 문제는 삭제되는 부분이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행절의 *말든가*가 절의 앞으로 이동한 후 나머지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 (15) 내가 학교에 가든가 (아니면) [~~말든가~~ [~~내가 학교에~~ ~~가지~~ t]]

그러나 *말든가*가 바로 앞의 *가지*와 분리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우며 (*가지 말든가* vs. \**말든가 가지*), 설령 분리되어 나중의 삭제를 통하여 잘못이 감추어진다 하여도, *말든가* 자체는 X° 범주이므로 전통적인 국어의 핵어말(head-final) 구조 하에서 절의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남은 한 가지 대안은 문제의 이 구문이 아래에서처럼 단일절에서 유도되었다고 (단일절 분석, monoclausal analysis) 보는 것이다:

---

아닌 부정-긍정의 순서를 실제로 용인하는 관련 문헌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 (16)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말든가      a'. 네가 학교에 가든지 말든지  
 b. 네가 학교에 가든가 가지 말든가    b'. 네가 학교에 가든지 가지 말든지  
 c. 네가 학교에 가든가 안 가든가      c'. 네가 학교에 가든지 안 가든지  
 d. 네가 학교에 가든가 가지 않든가    d'. 네가 학교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여기서 부정동사 반복은 *가든가 안 가든가*나 *가든지 가지 말든지*에서처럼 단형 부정이나 장형 부정의 의한 반복으로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 *가든가 말든가*나 *가든지 말든지*에서처럼 동사 *가*와 부정소 *말*이 이어져 동사가 부정되어 반복하여 나타나 보이지 않는 예도 있다. 이 예는 (16b)로부터 현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중복된 동사가 생략되어 유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제 4 절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 (17) 가든가 가지 말든가 => 가든가 ~~가~~ 말든가 => 가든가 말든가  
 (18) 가든지 가지 말든지 => 가든지 ~~가~~ 말든지 => 가든지 말든지

앞으로의 논의를 통하여 논문은 소개한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이 어떻게 유도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밝힐 것이다.

### 3.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의 도출: 쌍절분석의 문제점

앞의 절에서, 쌍절분석의 문제점으로 (14b)의 삭제부분이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5)에서 후행절 내의 *말든가*가 절의 앞으로 이동한 후 나머지가 삭제되는 방안도 전통적인 국어의 핵어말 구조하에서  $X^0$  범주인 *말든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남은 가능성은 핵어말 구조 하에서 후행절의 *말든가*가 주어보다 상위로 (예, C) 상승한 후 나머지 부분 (예, TP)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이다.

- (19) 네가 학교에 가든가 (아니면) [~~네가 학교에 가~~자] 말든가]

이러한 쌍절분석은 두 절 사이에 휴지를 (#로 표기) 필요로 한다:

- (20) 네가 학교에 가든가 # (아니면)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하지만 실제로 고려하는 구문에서 휴지는 아래에서처럼 수의적이다.

## (21) 네가 학교에 가든가 (#) 말든가

따라서 쌍절분석은 이러한 휴지의 수의성을 포착할 수 없는 것 같다. 물론 (20)과 같은 예들은 쌍절분석이 여전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며, 아래 (22)와 같은 예들은 쌍절 혹은 단일절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 (22) 네가 학교에 가든가 # 아니면 말든가

그러나 논의의 관심 대상인 (21)과 같은 예들은 단일절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다.

더욱 문제의 구문은 다른 어순상의 변이형들이 존재하는데, 쌍절분석 하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유도해 낼지 의문이다.<sup>3)</sup>

- (23) a. 네가 가든가 말든가 학교에  
b. 가든가 말든가 학교에 네가

먼저 (23a)를 유도해보자:

- (24)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 Right Node Raising  
b.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학교에  
=> Ellipsis  
c.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학교에

몇 가지 가능한 분석들 중에서, 위 (24a)에서 다중관할(multi-dominance)분석에 의존한 우측마디상승(Right Node Raising) (참고, Chung(2010)) 또는 전면이동(Across-the-board movement)이 적용되고 나서, 후행절에서 생략이 일어나면 (24c)에서처럼 원하는 표면 어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에서 (23a)와 같은 어순을 얻기 위해, 다중관할에 의존한 우측마디상승이나 전면이동과 같은 특수한 운용들이 정말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어에서 이들 운용들의 적용에 대한 비판은 Park(2009)과 Lee (2010) 등에서 잘 제시되었다.<sup>4)</sup>

3) 한 익명의 심사자는 (23b)의 예가 별로 좋게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인 어순이 아니어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수용성이라는 것은 문법성이라는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 국어가 자유어순변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필자의 직관으로도 (23b)를 기본적으로 문법적 문장이라고 여긴다.

다음 (23b)를 유도해 보자:

- (25)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b. [가든가 [네가 학교에 t]], [말든가 [학교에 [네가 t 가지 t]]]  
 c. [가든가 [네가 학교에 t]], [말든가 [학교에 [네가 [t 가지 t]]]]

우선 위의 (25b)의 도출은  $X^0$  범주인 *가든가/말든가*가 각 절의 앞으로 핵이동한 것인데, 국어의 핵어말 구조 하에서는 의심스러운 것이며, (25c)에서 *네가*의 역행삭제도 실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다:

- (26)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b.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c. \*학교에 가든가, 네가 ~~가지~~ 말든가  
 d. \*학교에 가든가, 네가 말든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23b)를 유도해 보자:

- (27)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b. [[네가 학교에 t] 가든가], [말든가 [학교에 [네가 t 가지 t]]]  
 c. [~~네가~~ 학교에 t 가든가], [말든가 [학교에 [네가 [t 가지 t]]]]

위의 (27b)의 도출은 여전히  $X^0$  범주인 *말든가*가 후행절의 앞으로 핵이동한 것이며, (27c)에서 *네가*와 *학교에*의 역행삭제도 실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다.

- (28)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b.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c. ~~네가~~ 학교에 가든가, 네가 학교에 ~~가지~~ 말든가  
 d. \*가든가 네가 학교에 말든가

이상에서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은 쌍절분석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대안으로 단일절분석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4)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이들 비판들을 구체적으로 반복하지는 않겠다.



#### 4.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의 도출: 단일절분석 옹호하기

먼저 이 구문이 단일절이라면 (23)을 포함한 다음의 예들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 (29)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말든가  
 b. 네가 가든가 말든가 학교에  
 c. 가든가 말든가 네가 학교에  
 d. 가든가 말든가 학교에 네가

만일 *가든가 말든가*가 하나의 구성소라면 (29b,c,d)에서처럼 이동이 가능하여 (23)의 어순을 (=29b,d) 쉽게 유도해 낼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의 구성소를 이룰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의미의 심사자가 귀뜸한 것처럼 이 반복동사가 어휘부에서 형성된 하나의 어휘복합어나 일종의 연쇄동사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다음의 이유로 고려될 수 없다. 즉, 이러한 어휘복합체는 하나의 어휘핵(lexical head)  $X^0$  범주가 될 것인데, 전통적인 핵어말(head-final) 구조에서 (29c,d)와 같은 어순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이 핵이 좌향이동을 해야 하지만 좌측에 핵이 없기 때문에 이 이동은 일어날 수 없다. 혹 통사부에서 긍정-부정 동사가 역시 핵어말 구조에서 하나의 구성소를 형성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X^0$  범주인 *가든가*나 *말든가*가 좌향이동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 반복한 (8)의 일부 예들에서 보듯이 완전히 굴절된 긍정과 부정 동사복합체 핵이 각각 어떻게 결합하여 하나의 더 큰 복합체 핵이 될 것인지는 아주 불분명하다.

- (8) a'. 갔든가 말(았)든가  
 b". 갔든가 가지 말았든가  
 c". 갔든가 가지 않았든가  
 d". 갔든가 안 갔든가

이들이 구성소를 이루지 못 한다 하더라도 각자 이동할 수 있다면 위의 어순을 도출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X^0$  범주인 *가든가*나 *말든가*가 좌향이동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핵어말 구조를 가정한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핵어선(head-first) 구조를 가정한다면 이러한 이동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국어에 대한 핵어선 구조의 채택을 일일이 논증하여 입증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신 Koopman 2005, Lee 2009, 2010, 이정식 2010 등 참고), 핵어선 구조를 가지고 위에서 논의한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을 단일절로 가정하여 그 어순의 다양한 변이형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핵어말 구조가 적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보이기 위해 굴절이 더 풍부한 동사복합체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의 예를 잠시 고려해 보겠다.

(30) 네가 학교에 갔든가 안 갔든가

이 예가 (29a)와 다른 점은 반복되는 동사가 굴절된 상태에서 반복되는 점이다. 이러한 동사 반복은 최소주의(minimalism)에서 이동의 복사이론(copy theory of movement, Chomsky(1993), Nunes(2004) 등 참고)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기용(2003)은 핵어말 구조를 가정하고 아래의 예에서 보이는 동사반복을 동사가 이동한 후 그 흔적이 음성적으로 실현되어 형성된 것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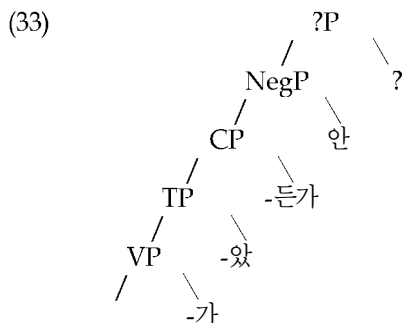
- (31) a. 선생님이 영희를 만나기를 만나셨다.  
 b. 선생님이 영희를 만나시기는 만나시었다.  
 c. 선생님이 영희를 만나셨기는 만나셨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식(2010)은 (30)과 유사한 ‘술어반복 선택의문문’의 동사반복도 이동의 복사이론에 입각하여 다루었다.<sup>5)</sup>

(32) 너는 이 옷 좋아 했니 안 좋아 했니?

따라서 (30)에서도 굴절된 동사가 반복된 것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핵어말 구조에서 (30)의 동사반복 현상을 다루려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나타낸 일부 구구조를 가정해야 할 것이다.



5) 대신 그는 핵어선 구조를 채택하였다. 아래에서 이 구조를 채택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위에서 굴절된 동사복합체 *갔든가*가 반복되기 위하여 구구조표지의 최상위 마디인 CP 위에 부정소 *안*을 핵으로하는 부정어구가 있고 그 위로 *갔든가*가 이동하여 *갔든가 안 갔든가*의 반복형태가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어말 구조에서 부정어구가 CP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보통 V와 T 사이에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관점과는 상이한 것이다. 더욱 핵어말 구조로는 동사가 문미에 오지 않는 (29b,c,d)와 같은 어순변이는 다루기 어렵다.

이제 단일절분석 하에서 국어에서 핵어선 구조를 채택하여 (30)과 같은 예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Koopman(2005)와 Lee (2009)를 따라 다음의 핵어선 구조를 가정할 것이다.<sup>6)</sup>

(34) Top - Foc - T - v (-Neg) - M - Asp (-Hon) - V

종종 시제소로 간주되어 온 *-았은* 상적(aspectual) 요소로 취급하며 (양정석(2008)), 부정소 *안*은 NegP의 지정어(Specifier) 자리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정식 2010의 관련 논의 및 여기에 소개된 문헌 참고). 이제 (30)은 아래 (35)에 제시된 단계를 거쳐 도출된다.

- (35) a. [VP 가- [PP 학교에]] ==> Merge Asp  
 b. [AspP -았 [VP 가- [PP 학교에]]] ==> Merge M  
 c. [MP -든가 [AspP 가-았 [VP 카- [PP 학교에]]]] ==> Merge Neg  
 d. [NegP 안 [MP 갔-든가 [AspP 카-았 [VP 카- [PP 학교에]]]]  
 ==> Merge v, Verb raising to v, Neg-procliticization  
 e. [VP 네가 [v 갔든가 [NegP 안-갔-든가 [MP 갔-든카 [AspP 카-았  
 [VP 카- [PP 학교에]]]]]] ==> Move PP  
 f. [VP [학교에] [VP 네가 [v 갔든가 [NegP 안-갔든가 [MP 갔-든카  
 [AspP 카-았 [VP 카- [PP 학교에]]]]]] ==> Move Subj  
 g. [TP 네가 [VP [학교에] [VP 네가 [v 갔든가 [NegP 안-갔든가  
 [MP 갔-든카 [AspP 카-았 [VP 카- [PP 학교에]]]]]]]]  
 h. 네가 학교에 갔든가 안 갔든가 (=30)

부정소 *안*은 항상 동사 앞에 나타나므로 위의 (35d,e)에서처럼 NegP의 지정어 자리에서 뒤의 동사에 후향접어화(procliticization) 된다고 본다. (35e,f)에서 PP의 이동은 각 구절의 지정어 자리를 연속 순환적으로 거쳐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8a')에 제시된 *갔든가 말(았)든가*는 *안*대신 *말*이 나타난 것이며, 이때 *가*가 생략된다고 본다. 이것은 형태론적 관점

6) Foc: Focus, T: Tense, M: Mood, Asp: Aspect, Hon: Honorific.

에서 고려하고 있는 동사반복의 환경에서 *안-가*가 *말-*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알* 'know'의 부정형인 *안 알/알지 않/알지 못* 'not know'이 형태적으로 *모르-*로 실현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sup>7)</sup>

이제 아래에 반복된 (29a)의 예는 (35)에 제시된 단계를 거쳐 도출될 것인데, 동사의 굴절에 상적 접사로 간주된 *-았*이 표면적으로 없는 경우이며; (29b)는 *학교에*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남아있는 경우이고; (29c)는 (35g)에서 관련된 하위의 vP 전체를 앞으로 이동하면 얻을 수 있으며; (29d)는 (35g)에서 *학교에*가 상위의 기능범주 지정어로 이동하고 하위의 vP 전체를 앞으로 이동하면 얻을 수 있다.

- (29)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말든가  
 b. 네가 가든가 말든가 학교에  
 c. 가든가 말든가 네가 학교에  
 d. 가든가 말든가 학교에 네가

그리고 다음 (7)에서 반복한 예에서처럼 부정-긍정 동사 연속체가 허용이 안 되는 사실도 설명해야 한다.

- (7) a. \*말든가 가든가      a'. \*말든지 가든지  
 b. \*안 가든가 가든가    b'. \*안 가든지 가든지  
 b. \*가지 말든가 가든가    c'. \*가지 말든지 가든지

위의 (35e)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정소 *안*이 뒤의 동사에 후향접어화 된 후 형성된 부정동사복합체가 상위의 긍정동사복합체를 넘어 이동해야만 (7)의 어순이 유도된다. 따라서 (7)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핵이동 조건을 어긴 것으로 귀착시킬 수 있다. 만일 후향 접어화가 PF(음성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부정소 *안*과 그 뒤의 동사는 아직 하나의 구성소가 아니므로 이들이 함께 통사부에서 이동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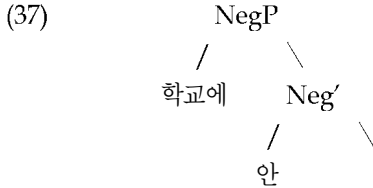
현 관점에서 *가든가 말든가*가 하나의 구성소로 여겨질 수는 없지만, 이들 사이에 다른 성분이 끼어들지 못한다는 사실도 다를 수 있어야 한다.

- (36) \*네가 가든가 학교에 말든가

위의 (35e,f)에서 PP의 이동은 각 구절의 지정어 자리를 연속 순환적으로 거쳐 이루어진다고

7) 앞의 두 경우는 반드시 *모르-*로 실현되어야 한다.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에 입각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로 Chung(2007) 참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가 NegP의 지정어 자리에 머물러 (36)이 유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즉, NegP의 지정어에 *학교에*와 같은 요소가 오면 부정소 핵 *안* 'not'과 그 [+Neg] 자질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못하므로 허용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혹 (37)의 지정어 자리에 부정극어가 오면 허용되지 않겠느냐는 반박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다음에 예시한 것처럼 그 결과는 예측과는 달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38) \*네가 가든가 아무데도 말든가

그러나 아래에 반복한 (10, 11)에서 보았듯이,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은 부정극어가 어디에 위치하든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10) a. 네가 아무나 만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 b. \*네가 아무도 만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 (11) a. 아무나 너를 만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 b. \*아무도 너를 만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따라서 (38)의 비문법성은 (37)의 형상에 대한 위의 설명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보다 더 일반적으로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이 부정극어를 허용하지 않는 별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결국 핵어선 구조 하에서, 처음 소개한 완전한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 예를 들어, (1a)

8) 여기서 (35f)에서처럼 *학교에*가 NegP의 지정어 자리를 거쳐 상위의 자리로 이동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마치 영어에서 의문사구(wh-phrase)가 내포서술절(embedded declarative clause)의 CP 지정어 자리를 거쳐 이동한 후 CP의 핵인 C와 의문자질의 일치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 (i) a. What did you say [<sub>CP</sub> t' [c that] [John bought t]]?
- b. \*Who said [<sub>CP</sub> what [c (that)] [John bought t]]?

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유도될 것이다.

- (39) a. 난 상관 안 해 [네가 가든가 말든가 학교에].  
 b. 난 상관 안 해 [네가 학교에<sub>i</sub> 가든가 말든가 t<sub>i</sub>].  
 c. 난 [네가 학교에<sub>i</sub> 가든가 말든가 t<sub>i</sub>] 상관 안 해 t<sub>i</sub>.  
 d. [네가 학교에<sub>i</sub> 가든가 말든가 t<sub>i</sub>] 난 t<sub>i</sub> 상관 안 해 t<sub>i</sub>. (=1a)

## 5. 부정극어로서의 긍정-부정동사 반복체

먼저 위의 (10, 11)의 예들에서 나타났던 부정극어의 부재 현상을 다루겠다. 제 2 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내포절 내의 부정극어가 주절의 부정소에 의해 인허되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극어 인허의 국부성 조건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겠으나, 다음의 예를 고려하면 더 자세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 (40) a. \*네가 아무도 만나든가 말든가  
 b. \*아무도 너를 만나든가 말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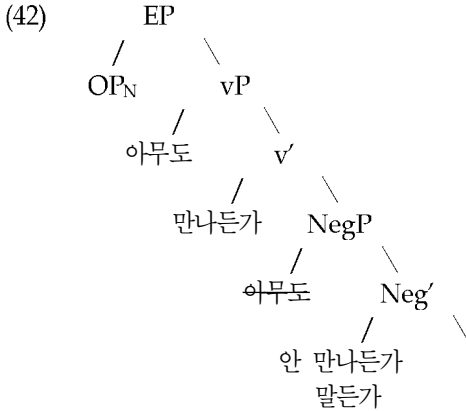
즉 부정극어가 동일절 내에 있는 부정동사의 부정소에 의해서 인허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일단 (40a,b)의 예에서 *만나든가 말든가*는 의미적으로 각각 만나는 대상이나 만나는 자의 비한정적(indefinite)인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존재를 함의하지 않는 부정극어는 위의 문맥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여, 이 부정극어는 긍정동사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관계를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나타내 본다.

$$(41) \text{NPI (V or not-V)} = \text{NPI V or NPI not-V}$$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변의 전항 NPI V 부분이다. 부정극어를 인허할 부정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대강 수형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래의 vP 위에 모종의 구(예, 사건구 Event Phrase, Travis(2010) 원용)가 있어 그 지정어 자리에 하나의 공운용자가, 예를 들어, 선택부정 공운용자 OP<sub>N</sub>이 위치하여, 긍정-부정 동사를 그 범위로 취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부정동사의 부정어 **안**이나 **말**은 선택부정 공운용자의 일부 외현적 실현이라고 간주한다. 여기서,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부정극어는 (42)의 환경에서 인허될 수 없다. 이제 OP<sub>N</sub>은 내포절의 CP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C와 지정어-핵 관계를 이루어 필요한 자질 점검을 하여 인허된 후 그 범위를 취한다고 본다.

여기서 내포절 C의 자질은 무엇인가? 아래에 반복한 (1a,b)에서 보이는 대조를 통해, 주절 부정동사가 내포절 보어의 C에 [+Neg] 자질을 선택한다고 본다.

- (1) a. 네가 학교에 가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상관없어/관심 없어.
- b. \*네가 학교에 가든가 말든가, 난 상관 해/상관있어/관심 있어.

결국 C[+Neg]가 그 지정어 자리에 있는 선택부정공운용자 OP<sub>N</sub>을 인허하게 된다. 이는 이 공운용자가 일종의 부정극어라는 말이다. 그래서 피상적으로는 **가든가 말든가**와 같은 선택부정 반복동사가 부정극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비로소 (1a)와 (1b)의 대조를 일반적인 부정극어 인허 양상으로 귀착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살펴 본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의 다른 통사적 성질을 하나 소개하고 논의를 마치겠다.

- (43) a. 나는 [영희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 b. \*나는 [영희가 밥을 먹는지] 상관없다.
- (44) a. \*나는 [영희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궁금하다.
- b. 나는 [영희가 밥을 먹는지] 궁금하다.

이 구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포절이 의문사-섬(wh-island)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 (45) a. 밥을 나는 [영희가 t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b. ?밥을 나는 [영희가 t 먹는지] 궁금하다.

본 논문의 분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국어의 다른 비슷한 동사반복 유형의 구문을 분석하는데도 좋은 안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차후로 미룬다.

- (46) 하거나 말거나, 할지 말지, 하라 말라, 할까 말까, 할동 말동,  
 하는 등 마는 등

## 6. 결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국어의 '선택부정 반복동사 구문'을 새로이 소개하고 그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하든지 말든지*와 같이 양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반복동사가 분포상 부정극어와 그 성질을 공유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하고 왜 그러한 성질을 보이는지 그 인허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부정 반복동사구문'은 쌍절이 아니라 단일절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더욱 이 구문이 보여주는 다양한 어순을 국어의 전통적 어순으로 가정해 왔던 SOV 가설로는 순조롭게 유도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였고, 반면 근래 일각에서 부각되어 온 SVO 가설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논문의 연구 결과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정어-핵-보어의 범어적 SVO 기본 어순을 제안한 Kayne(1994)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핵매개변인(head parameter)을 없애 최근 최소주의의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극소화 취지에 (Chomsky(2005) 및 이후 연구들) 부합하게 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가 맞다면 기존의 SOV 어순에 입각한 국어 통사론 논의에 불가피 변화를 시사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양정석. (2008). 한국어 시간요소들의 형태통사론. *언어*, 33, 693-722.  
 이정식. (2010). 술어반복 선택의문문. *언어학*, 18, 89-114.  
 임지룡 (1985). 상대성 접속어미 연구. *국어통사론*, 244-289. 서울: 진명문화사.  
 최기용. (2003). 한국어와 핵이동: 종결형을 중심으로. *생성문법연구*, 13, 119-142.



- Chomsky, N. (1993). A minimalism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 J. Ka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pp.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5). Three factors in language design. *Linguistic Inquiry* 36, 1-22.
- Chung, Daeho. (2010). Left node raising as shared node raising.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0, 51-71.
- Chung, Inkie. (2007). Suppletive negation in Korean and distributed morphology. *Lingua* 117, 95-148.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oopman, H. (2005). Korean (and Japanese) morphology from a syntactic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36, 601-635.
- Lee, Jeong-Shik. (2009). A verb-initial single clause analysis for right-dislocated constructions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57, 127-157.
- Lee, Jeong-Shik. (2010). Arguing for the SVO hypothesis in Korean: Evidence from LNR and RNR. *Studies in Linguistics* 17, 235-253.
- Nunes, J. (2004). *Linearization of chains and sideward movement*. Cambridge, Mass.: MIT Press.
- Park, Myung-Kwan. (2009). Right node raising as conjunction reduction fed by linearization. *Language Research* 45, 179-202.
- Travis, L. (2010). *Inner Aspect: the articulation of VP*.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Publishers.

## 이정식

원광대학교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3) 850-6873

이메일: jslee@wku.ac.kr

Received: 22 June 2011

Revised: 28 July 2011

Accepted: 28 August 2011